

충남 농업·농촌 분야의 전망과 과제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여건과 전망

1) 충남 농어촌의 현실

오늘날 충남의 농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유지가 불확실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0년 충남의 농가 인구수는 25만 7천명으로 2007년 42만 8천명 보다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¹⁾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도 2020년에 약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및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한 농어업 인력 재편이 예상된다. 또한 농어촌 마을수의 급격한 감소와 농어촌 마을당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마을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TA, DDA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원유가 및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특히, 축산업과 시설농업 농가 경영에 불안정성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복지, 교육, 기초생활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증가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2020 충청남도 농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요약보고서, 2009, 충청남도

- 농가인구수(충남) : 2008년 429천명 ⇒ 2020년 257천명
- 65세 이상 농가인구(충남) : 2008년 33.3% ⇒ 2020년 44.6%
- 학교 교육기회 만족도 : 도시 54.5%, 농어촌 26.2%
- 상/하수도 보급률(전국, 2005년) : 농촌 56.9%/35.8%, 도시 98.3%/94.2%

2)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인의 소비패턴이 양에서 질로 고급화됨에 따라 농산물 구매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가치(품질, 안전성, 쾌적성)로 전환 즉,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시장과 경제사회의 환경은 WTO, FTA 등으로 관세 ·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국경 없는 개방사회로 전환되어 소비, 무역, 자원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의 중심축이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 소비자 선택기준 : 가격(price) ⇒ 가치(value)
- 시장과 경제사회 환경 : 폐쇄(closed) ⇒ 개방(open)
- 생산요소 중요성 : 토지(land) ⇒ 사람과 기술(human-tech)

3) 농어업 ·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

농어업 · 농어촌지역이 갖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 · 자연환경 보전기능, 휴양제공 기능, 전통문화보전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촌관광, 1사1촌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농정의 이념이 생산중심에서 농산물의 품질,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농업의 녹색성장 중요성 증대

지구온난화로 자원 및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투입하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농업부문은 기본적으로 녹색성장과 가장 근접한 부문으로서 재배기술과 농법의 전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정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 된다.

II. 추진 방향

1)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창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별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 프로그램 이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IT·BT 등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림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2)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 산업 및 유통

안전도, 신선도, 기호도 등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장지향 소비지 푸드체인 유통 활성화 및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식품제조업 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과 병행하여 충남의 중요 지역에 생산과 가공 등을 포함한 농식품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한다.

3)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농어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복지, 의료, 문화시설 등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농어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며,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대대적 확충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에 따른 농산촌 탄소순환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마을의 친환경적 개발과 녹색 식생활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Ⅲ. 주요 추진 내용

1) 농어업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

- ①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전문가(2, 3차 산업CEO) 육성
 - 농업법인 창업을 위한 교육·상담 시스템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② 귀농·귀촌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 도·시군 : 귀농·귀촌 정착 자금지원, 귀농의 방 홈페이지 개설, 귀농 지원 상담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현장중심 맞춤형 영농상담, 현장 애로사항 해결, 귀농 홍보관 운영
 - 마을·선도농가 : 농촌생활, 주민관계유지, 농업기술 멘토링
- ③ 새로운 농업노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한 단계별, 능력별 지원
- ④ 미래 농업 선도 후계인력 육성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전문 농업인력 육성
 - 농업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2)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 산업 및 유통

- ① 충남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린 World Best 전통식품 육성
 - 충남의 특성을 살린 발효식품(젓갈류), 민속주 중심으로 명품화 추진
 - 전통식품 전시·체험·교육기능을 갖춘 「종합체험 전시관」 건립
- ② 생산부터 소비까지 쉼단계 HACCP 적용 확대 등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 생산부터 소비까지 쉼단계 HACCP 적용 2020년까지 100개소 확대
- ③ 서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농·수산 원료 및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서해안의 수산식품을 세계적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서해안 권역 농식품 산업의 Sea-Food 식품클러스터 육성
- ④ 지역의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확대 지원

- 시·도 또는 복수 시·군의 광역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생산자와 식품업계 간 식재료 계약거래 활성화
- 농어업인(조직)과 식품업계가 공동 투자한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3)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 ①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농어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 ②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
 -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 정주기반 조성
 - 기초생활 환경 및 편익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
 - 시·군별로 1~3개 읍·면소재지를 농촌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중심지 및 농촌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 ③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 2020년까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 확대
 - 농어촌 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 인프라 구축
 - 농어촌형 체험·휴양·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확충
- ④ 농어촌 주민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원 및 시설확충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 ①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대대적 확충
 - 유희토지 조림을 통한 신규 탄소흡수원 창출 및 소득 증대 기여
- ② 탄소흡수기능 증진 및 숲 보호 강화
 -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숲가꾸기 확대 추진
 - 속성수인 백합나무 등 바이오순환림 집중 조림
- ③ 농어촌마을의 친환경적 개발 및 녹색 식생활문화 형성
 - 마을정비 시 경관보전, 녹지 확보 및 마을 숲 조성
 - 수송·가공 과정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 먹거리 운동 확산
- ④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 화목검용·펠릿보일러 확대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설치
 - 탄소순환마을 조성
 - 가축분뇨에서 추출된 메탄가스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